

[오피니언]

월/요/광/장

조기인



동양 문화권에서는 '세상사 새옹지마(世上事 塞翁之馬)'라 하여, 인생의 행운과 불행에 대해 일회일비하지 않고 초탈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돼 왔다. 이에 비해 서양 문화권에서는 행운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다. 영어에서 '뜻밖의 행운 또는 선물'이라는 의미의 '세렌디피티(Seren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세렌디피티의 어원은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이 지은 '세렌디피의 세 왕자(The Three Princes of Serendip)'라는 동화에서 유래한다. 이 동화는 여행을 떠난 세 왕자가 비록 원래 자신들이 원하던 목적 자체는 달성하지 못하지만,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난 뜻밖의 사건들을 해결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는 이야기이다.

새옹지마가 체념적인 운명 순응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수동적 행운을 의미하는 반면, 세렌디피티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열정과 창의성이 결부되어 만들어내는 예기 하지 않은 기쁨을 의미한다.

지난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으로 분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세렌디피티를 기다리며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며 연초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했고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점까지 상승했다. 금융위기는 최근 실물위기로 전이되어 기업들의 경영실적 및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추세다. 이번의 침체로 경기는 단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前FRB 의장인 앤런 그린스펀도 '현재의 위기는 100년에 한번 나올 쓰나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형편에

얇아 날카로운 돌에 긁혀 몸을 잘 다치곤 하는 모습을 보고는 "두꺼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면 잘 찢어지지 않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두꺼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었고 그 바지는 광부들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서 대유행을 불러일으키며 그 청년에게 새로운 금맥이 되었다. 이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Levi's)의 창업자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다.

또 다른 예는 3M사의 포스트잇 개발이다. 지금은 누구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활용하는 접착식 메모지이지만, 처음 개발 당시에는 고기능 접착제를 만들다 실패한 쓰레기로 불과했다. 그러나 한 연구원이 우연히 메모지의 내용물을 허용하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포스트잇은 3M사를 세계 굴지의 사무용품 제작사로 키우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

이는 실패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맞서 대응했기에 가능한 일이 있고 그들에게는 결국 세렌디피티의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듯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기의 시간에 절망하기보다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려고 준비하는 태도를 견지하다 보면 원래 목적한 바는 아닐지도 뜻밖의 빛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세렌디피티의 교훈이다.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다짐이 으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연말연시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시다난했던 2008년을 뒤로하고 2009년 기축년에는 모든 가정에 세렌디피티의 행운이 가득하기 기대해본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장용주

사람들은 인생에서 온갖 복을 갖추었다고 말할 때 '오복(五福)'을 예로 든다. 오복에 대해 처음 기록한 것은 중국 고대 「상서(尚書)」 흥법(洪範)편으로, 오복은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수를 첫 번째 복으로 꼽았다. 부귀·영화도 오래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는다면 부귀·영화는 물론 모든 것이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무자년(戊子年)에는 유난히도 대형

기고



이은미

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구직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주위 어른들은 비싼 등록금 내며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학원비까지 내며 무얼 더 배우느냐고 말을 하신다. 하지만 당사자의 직업은 그 사람의 척도가 되어버린다. 대학교까지 나와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 이런 질문을 회피하는 사람의 비단 나쁜만은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평생직장보다 평생직업’이라는 말

소방안전은 오복의 기본

둘째 '부', 여기에서 부는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비록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탈이 없다 하더라도 늙어서 그 여생을 유지하고 지탱해 갈 재물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강녕',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한 상태를 강녕이라 부른다.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유호덕', 덕을 그들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인데 오복의 조항 중 가장 철학적이면서도 인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고종명',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강녕'을 고루 포함한 것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제령대로 살다가 그것이 바로 화재다. 화재란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의 목적과 다

화재들이 많았다. 1월 경기도 이천시 화재로 10명이 부상한 화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우리 문화의 자존심인 송례문이 화재로 폐허가 되었고 지난 5일에는 이천시 미장면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의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10월에는 논현동 고시원에 방화사건으로 사망자 6명, 중경상 7명이 발생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순직도 많은 한해였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출발된 장기간의 국내 경기침체는 200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밀의 풍경을 더욱 아둡게 하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상황을 혼자나가기 위해 개인은 절약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한다.

소방안전을 지키는 것은 오복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다. 기축년(己丑年)에는 주변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광주 동부소방서장〉

실직자의 내일을 열어라

태백(20대 태반인 백수), 삼팔선(38세 퇴직),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록) 등이 신조어로 등장을 했을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수님의 소개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잠시 일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올해부터 광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라는 제도를 접했다. 불안한 실업 현실에 웬지 모를 들판을 느끼게 되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에서 구직자들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일정한 한도만큼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가 구직자들에게 발급돼 직접 원하는 학원에 가서 결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전 제도보다 수요자를

이 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갈 곳 없어져 고민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특히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제일 편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라고 변명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자신의 비전 등을 고려해 적성에 맞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배우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 좋다.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길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맞부딪쳐 배운다면 돈을 번다는 물질적 소득 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도로 차선 밝기 개선해 안전운행 도와야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한다. 비가 오는 야간 운전은 너무 힘들다.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미국에 갔다가 경험했는데 그곳 도로는 낮에 본 차선이나 비 오는 밤에 본 차선이나 선명도가 똑같았다. 비가 오는 밤에도 차선이 반짝이길래 차선에 전등을 했으므로 차각을 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차선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 등 선진국은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받아 차선내 유리알에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는 휴도 규정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차선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차선은 비 오는 야간에는 차선이 아래 칠해지지 않은 이스

팔트 위를 측정했을 때 나오는 13mcd(밀리 칸델라)와 비슷한 수치라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 반면에 미국의 경우 백색선의 밝기는 80mcd, 황색선은 50mcd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 비 오는 밤중에 운전을 하려면 그 애랄로 평소 다니던 길에 감각으로 다니게 된다. 초행길의 경우는 아래 옆 차선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로의 차선 밝기를 하루 빨리 개선해 운전자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아이들 교육, 부모 욕심보다 자녀 자질 맞게”

내가 자랄 때 방학이 마냥 즐거웠다. 겨울 방학만 되면 눈싸움도 하고 얼음도 치하고 연날리고 감자·고구마도 구워먹었다. 틈틈이 방학 숙제도 했다. 뒤쳐진 학과 공부도 보충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 방학이 데도 다양한 관찰과 체험, 천체관찰 등으로 충만해졌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논술학원 등 온종일 학원을 찾고 있다.

심한 경우 축구교실에 미술학원, 피아노 학습, 태권도장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동네 또래들과 잘나가는 유명 학원 강의도 듣는다.

학생 상당수가 선행학습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들 중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학원만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부모의 이기심이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자녀의 능력과 자질은 파악하지 않고 '남이 시키니 나도 시킨다'는 잘못된 의식은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아이들만 치칠 뿐이다.

▲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영산강 뱃길’ 환경과 조화가 성공열쇠다

‘영산강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29일 기공식과 함께 첫삽을 뜯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이면서, 전남도의 ‘영산강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이기도 한 뱃길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영산강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영산강 뱃길은 복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4대 강 중 최악인 영산강 수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흥수를 막으려면 강둑도 손봐야 한다. 옛 뱃길을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국민 혜택이다. 영산강은 복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기공식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 등 여권 핵심도 ‘대운하 않겠다’고 확실히 못박아야 할 것이다.

영산강 뱃길은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운하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여론을 봄아면서 이를 연결하는 대운하 사업으로 물길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 일각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엄중한다. 전남도는 뱃길 복원은 대운하 개발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등 여권은 ‘대운하하면 어떻고 4대 강 정비면 어떠냐’는 식으로 강행하면서 생긴 문제다. 영산강만 해도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친환경 개발은 물 건너갔다는 비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기공식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 등 여권 핵심도 ‘대운하 않겠다’고 확실히 못박아야 할 것이다.

영산강 뱃길은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러나 대운하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된다.

관광인프라 필요성 일깨운 지역 방문의 해

을 해는 지역관광의 발전 가능성은 확인한 1년이기도 했다.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 관광객 유치와 친절 서비스에 앞장 선 여행업체와 주민, 지자체 관계자들의 노고가 커졌다.

관광객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광주시에는 지난 10월 말까지 1천475만명이 다녀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4%가 늘었다. 유료 관광지 방문객 증가율은 36%를 넘어섰다. 전남도의 경우 해수욕장 관광객은 10%, 주요 축제 관광객은 28.3% 증가했다고 한다.

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광주·전남이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이번 성과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에서 나왔다. ‘맛과 멋의 고장’에 어울리는 다양한 이벤트가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밀가루였다. 한 층 내용이 풍부해진 광주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영산강 황포돛배·토요경매·슬로보시티 같은 새로운 콘텐츠로 무장한 60여종의 전남 관광상품 등 기획력이 돋보였다.

광주 춤장로축제, 학평 나비축제 등 8개 지역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계도 노출됐다. 방문객 증가라는 외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1박 이상 체류형 관광객은 수년째 감소 추세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도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관광객들이 가족·친지 단위의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터에 리조트 단지 같은 대규모 휴양시설이 부족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다.

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광주·전남이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그럼에도 ‘노력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한 해였다. 내년부터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인프라 조